

가해

— ◆ —  
주님 승천 대축일

기초 자료

— ◆ —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사도행전의 승천 이야기

루카는 두 번째 작품(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작품(루카복음)을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는 당시 역사가들의 저술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 사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에 이어짐을 드러내고자 함

## 구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다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 1,9)

✓ 원문 번역: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탈출 24,1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마태 17,5)

=> 구름이 누군가를 덮은 뒤에는 항상 주님의 뜻이 전해진다.

사도행전에서 구름이 예수님을 뒤덮을 때 우리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 예수 재림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사도 1,10)

=>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권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구름에 감싸였을 때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다.

## 하느님 현존의 장소 구름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탈출 19,9)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탈출 16,10)

구약성경에서 구름은 하느님 현존 및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 안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현존의 장소로 들어가셨음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셨음을 의미한다.

## 마태오 복음 마지막 이야기

마태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 예수님 승천의 의미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써

교회가 당신의 일을 이어 받아

이 땅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 예수님은 성찬례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



##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임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에페 1,20)

하느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지니신 권세를 누리는 **왕좌에 앉는다는 것**

=> 예수님은 더 이상 물리적인 한계 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

##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페 1,22-23)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힘을 얻어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분 재림에 이르기까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